인적 끊긴 절터…잡풀만 법공양

감성으로 보는 절

<20> 잡풀의 도량-폐사

내가 사진 촬영을 위해 이곳 저곳 많이 다니니까 어떤 분이 심심풀이처럼 내게 묻는다. "절에 많이 가 보셨겠네요?" "네, 조금요." 그 분이 내게 다시 묻는다. "가보신 절 가운데 좋은 절을 꼽으라면 어느 절을 꼽으시겠어요?" 좋은 절? 난 좀 혼란스러워진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내가 대답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번엔 저쪽에서 좀 엇갈리는 표정이다. 관점? 절에 무슨 관점이 있는 것일까? 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절, 하면 우리는 어떤 절을 머리에 떠 올릴까? 수려한 뒷산을 두고 수천 평쯤 되는 넓은 뜰에 각종 전각과 화려한 단청과 큰법당, 국보적 가치가 있는 보물이 몇 개쯤 있는 절, 그런 절을 우리는 명찰이라고 하고, 아주 좋은 절이라고 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관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겠지. 하긴 나도 그렇게 알고 오랫동안을 지내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절을 명찰이라고 한 것은 누구일까? 참 길(道)을 깨우친 스님들이 그랬을까?

나는 절을 다니면서 한동안 혼란에 빠진 때가 있었다. 정말 높은 스님들이 계신 곳은 너무도 허름하고, 내가 사는 집보다 못하거나 그저 비슷비슷한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은 '사진 감'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난감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른바 우리가 명찰이라고 하는 곳은 '삶의 깨우침'이 있는 곳이라기보다 인간의 허구적인 미의식에 의해 포장되어진 것이 아닐까?

사실, 내가 이런 글을 주절주절 쓰게 된 동기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화려한 절에 대한 관념이 과연 절을 이해하는데 바른 관점인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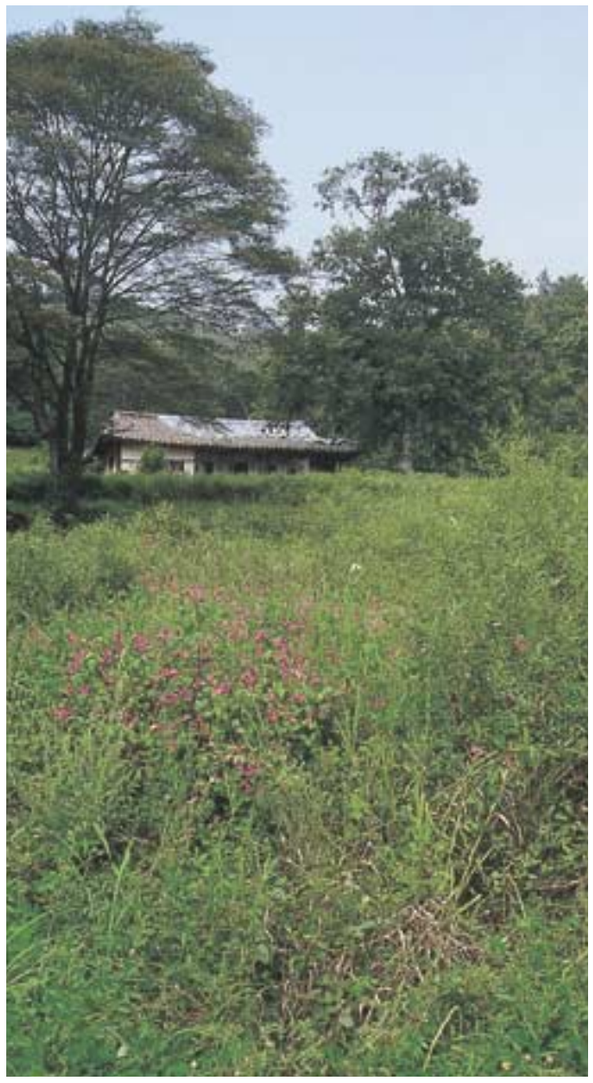
부질없는 현세의 영화만 좇을뿐

선정에 든 고독한 부처님 왜 못보나

는 문제를 나 스스로 묻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절에 대해 해설하기 시작한 미술사학자나, 건축학자의 학문적인 관점이 일반화되어 이해되는 것에 대해 나는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천안의 병천에 있는 은석사를 우연히 들리게 되었을 때, 나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이름난 폐사지를 여러 곳 들렸지만, 원래 역사적 지식이 짧은 탓이기도 했지만, 돌 몇 덩이 남은 터전에서 나는 역사적 상상력이나 감동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번민을 했다. 나에게 폐사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저 절에도 영고성쇠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 이외에 나에게 주는 의미나 감동은 별로 없었다.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고 물길을 따라 다다른 은석사는 잡풀만 무성하고, 옛날에 그저 조사당 정도나 쓰였을까 할만한, 헐어져 가는 집 한 채에 자그마한 금칠한 목불을 모신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몇십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 옆에 비껴서 시커먼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 느티나무 밑둥이엔 역시 수십년은 될 성 싶은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기어 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옛 절의 영예를 그리워하듯 운다고, 절을 지키고 있는 스님이 조용조용히 일러준다. 느티나무는 엄청난 잎으로 절에 그림자를 드리워 뜨거운 뙤약볕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땅으로 수용되어 급격하게 쇠락해져 갔다고 하는 이 절은 워낙 외딴 산골짝이고, 변변한 절도 아니어서 신도도 많지 않고, 스님들이 그저 귀양오는 기분으로 길



◇이름모를 들꽃과 잡풀이 무성한 병천 은해사 앞뜰.

어야 몇 달씩 정도 머물다 또 훌쩍 떠나곤 한다는 것이다. 내가 몇 번씩 들러도 갈 때마다 다른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저 스님의 휴양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나는 툇마루에 앉아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바라보았다. 산도 그 산이요, 하늘도 그 하늘이요, 구름도 그 구름인데, 스님도 왜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일까? 느티나무 잎은 우수수 시원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떠나가 버린 수많은 스님과 영화만 좇아 복비는 사람들의 모습이 느티나무 잎 하나하나에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부질없는 현세의 영화를 벗어나기 위해 고타마 싯다르타는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왜 절에서조차 그 허망한 영화를 좇아 이곳저곳 화려한 절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그리고 절을 장엄하게 장식하여 감동하고 감탄하고 상찬하는 것일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부처님이 절 안에 고독하게 선정에 든 것을 알지 못하고-.

스님도, 사람들도 다 떠난 절 앞뜰에 잡풀들이 법공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나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언젠간 또 인간들이 저들을 무참하게 베어내고 화려한 법당을 세운다고 소란을 떨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었다. 그래서 저 풀들은 사람만 보면 좌불안석 저렇게 떨고 있는 것일까?

전생(사진작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전생엔 부처님 누구였을까

한글대장경의 세계

본생경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때 사슴이었고 코끼리였다. 뿐만 아니라 수행자이기도 했고 왕이거나 도둑이기도 했다. 어떻게 들으면 황당하고 어떻게 들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다. 물론 불자들은 윤회를 믿기에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을 것이다. 부처님이 카빌라국의 왕자로 태어나 설산에서 수행하여 마침내 성불을 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 40년간 설법을 한 뒤 입적했다는 생애는 과거생의 많은 인연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임을 믿는 것이다.

본생경(本生經)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다. 무려 547편의 전생이야기를 모아 된 것으로 한글대장경 간행 번호 91번부터 95번까지의 5권이다. 본생담이라고 하기도 한다. 파리어 자타카의 한역이다. 이 말은 본래 '태어나다' '태어난 자' 등의 뜻이었으나 '태어난 그 때의 일'이란 뜻으로 변했고 다시 불교에서 '이승에 태어나기까지의 전생 이야기'란 독특한 의미로 변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라는 특정적인 의미까지 지니게 되었다.

이 자타카란 말이 어디에서 연유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쓰인 것으로 보이며 중인도 바르훗의 석각문에 이



재미난 우화 5백47건

윤회의 가르침 새겨

미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이었을 때의 이야기와 코끼리였을 때 등 19종의 이야기를 표현한 문양이 확인 됐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한 순간에 누구에 의해 설해지거나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긴 세월을 두고 첨삭되며 자리를 잡아 왔으며 이는 인도의 우화 발생과 변화에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알다시피 인도의 우화는 유럽으로 전해지며 '이솝 우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타카의 정신을 단적으로 말하면 단연 윤회다. 사람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으로도 태어 날 수 있다는 윤회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자타카가 구성될 수 없다. 지금의 본생경은 파리어로 쓰여 진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토속어로 구전 되어 온 것을 다시 파리어로 옮긴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운문과 산문의 적절한 사용, 거기에 서사시의 격조를 유지하며 전해 오는 이야기도 있어 본생경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책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존엄을 느낄 수 있는 본생경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경전이다.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작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1불자 1권 봉안불사'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

"전화 한통화면 봉안불사 O·K"

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1불자 1권 봉안불사
◆대장경 법보시안내
◆화주 권선 안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까지 돈 안들이고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